

# 연합감리교 구호주일

설교자료

*YOU  
ARE  
LOVED*



열린 가슴, 열린 마음, 열린 문.  
한인연합감리교회®

## 선한 일을 위해 창조되었다

본 설교자료는 연합감리교구호주일과 사순절 넷째 주일 성서 일과표(Year B, 에베소서 2:1-10, 요한복음 3:14-21)를 연결하는 성경 중심적 설교 예시입니다. 개 교회가 다른 주일을 연합감리교구호주일로 지키는 경우 상황에 맞게 바꾸어 활용하세요. 본 자료를 “선한 일을 위해 창조되었다”라는 제목의 예배 자료와 헌금 전 이야기 및 어린이 설교/주보와 함께 사용하세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에베소서 2:10

32세의 미혼모 제니는 코로나바이러스-19 전염병이 유행하기 이전에도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자녀를 임신한 상태로 열심히 일하는 한편, 정부의 식료

품 보조금(SNAP benefits)과 저소득 가정 지원으로 근근이 버텨왔습니다.

전염병의 대유행과 더불어 현지 식량 가격은 상승하였고, 급기야 강력한 폭풍으로 그녀가 사는 켄터키 동부 산간 지대가 정전 피해를 당하면서, 냉장고에 보관했던 모든 음식을 버려야만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긴급 식품 저장고에서 단기간 살아갈 음식을 공급받기도 했지만, 그녀는 다음 두 달을 어떻게 버텨야 할지 난감해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그리스도 안에 선한 일



# 연합감리교 구호주일

설교자료

을 위해 창조된 연합감리교구호위원회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습니다. 구호위원회의 코로나바이러스-19 긴급 보조금 덕분에 제니는 6월과 7월에 가족들을 먹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구호위원회가 우리 지역 사회 내에서 어떤 사역을 하는지 보았습니다.

(설교자는 해당 교회나 연회가 구호위원회 활동에서 함께 봉사했던 예나 혹은 도움을 받았던 예를 이곳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구호위원회는 연합감리교회를 통한 우리의 공동 사역의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기관은 우리가 *Missio Dei*라 불리는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역을 수행하고 세상에 필요한 선을 행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에베소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저자는 그들이 그리스도 안의 구원을 살아내도록 격렙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사실과 예수님을 보내어 우리의 자기 몰입적이고 파괴적 방식에서 깨어나도록 하셨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 려 했습니다.

사순절 내내 우리는 하나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우리의 삶의 방식을 되돌아봅니다. 어떤 방식으로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나 내 주변의 사람들을 위한 최고의 것을 놓친 채, 그저 내게 필요한 일들에만 갇혀 있었나요?

우리는 너무나 자주 두려움 속에 삽니다. 우리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며 삽니다. 그 때문에 우리 수중에 있는 작은 것 놓기를 두려워하면서 단단히 붙잡은 채 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공홀이 풍성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4절).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해 우리는 선한 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선물을 받기 위해 어떤 일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올해 상실을 경험했고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또한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홀, 또 은혜가 역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언제 공동체를 통한 치유를 경험하셨나요? 아마 내가 이웃을 도울 수 있었던 적도

# 연합감리교 구호주일

설교자료

있었을 것이고 또 누군가로부터 꼭 필요했던 순간에 지원을 받은 적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서로를 돌보는 일과 또 돌봄을 받는 일은 우리가 가진 것이 부족하다는 사고방식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시간을 드리고 재능과 물질 등을 드리는 일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여 하나님의 넉넉한 은혜 안에 살게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나누는 상호적 관계를 통해 우리가 가진 것은 모든 이들에게 충분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야말로 복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대로 사는 것은 우리가 깨어남을 의미합니다. 우리 또한 부활할 수 있습니다. 절망의 자리에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량할 수 없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그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전해주는 것 이외에,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방식 이외에는, 다른 삶의 방식이란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그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전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기반을 둔 구호위원회는 우리와 같은 연합감리교회들의 지원을 통해 지난 80년 동안 전쟁이나, 시민 소요 사태, 산불, 기근, 홍수로 고통당하는 이들의 필요에 대응해 왔습니다.

구호위원회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일들을 감당하며 살 수 있다는 것이 놀랍지 않으십니까?

YOU  
ARE  
LOVED



열린 가슴 열린 마음 열린 문  
한인연합감리교회®